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 교육·문화 발전에 대한 고찰*

고광명**
kkm0630@jejunu.ac.kr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제주도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 |
| 2. 기존연구의 검토 | 5. 맺음말 |
| 3. 제주도 교육 발전에 대한 공헌 | |

主題語: 재일제주인(Jeju people living in Japan), 제주도(Chejudo), 교육 발전(development of education), 문화 발전(development of culture), 공헌(contribution)

1. 머리말

재일제주인은 일본 사회에서 굴곡 많은 삶을 살아온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다. 현재 재일제주인은 2011년 기준으로 재일한인 545,401명 중 86,231명으로 약 1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일한인 전체 중에서 경상남북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入管協會, 2012).¹⁾

재일제주인 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910년대 일본의 수탈정책에 의해 토지를 잃거나 생활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이 일본 노동시장의 수요 증대에 따라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되었다. 더욱이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직항항로의 개설은 제주도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 1930년 후반에 이르러 전쟁수행을 목적으로 징병·징용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의 전시체제 기간으로 1938년 제정된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과 1939년 제정된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등으로 노동력 착취를 위한 징용으로 동원되

* 본고는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3S1A5A2A01019043).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

1) 2012년 이후 본적지별 재일한인 인구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 제주도 출신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入管協會(2012)『在留外國人統計』

었다. 1945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제주 43사건 후유증에 따른 밀항과 한국 전쟁을 피해,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와 출가해녀(出稼海女) 등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다.²⁾

이들은 이주 초기에 섬유, 인쇄, 군수(軍需)공장, 재생자원, 금속제조, 선박회사, 방직, 철강, 가방, 재봉(봉제), 플라스틱, 유리, 광부광산, 신발(구두)제조, 토목건축, 고무 등 대부분 조선, 탄광, 토목공사에 단순노동으로 투입되었거나 방직과 고무공장에서 일하면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으며 중노동에 시달려만 했다. 결국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가방제조, 신발제조, 자갈이나 고철수집 등 최하위 노동자로 생활하였거나 일본인들이 꺼리는 유리, 금속, 고무, 가방, 방직공장 등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과거 일제(日帝)의 착취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온 일본 땅이지만 낮은 땅에서 온갖 멸시와 차별, 가난과 설움, 고된 노동과 비참한 삶 속에서도 제주인 특유의 근면과 강인한 인내로 모은 돈을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왔다. 그래서 이들은 이국생활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보다 고향의 어려운 현실을 더 걱정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당시 제주를 방문한 재일본제주개발협회는 힘든 여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제주도민에게 제주도 발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 관청이나 출신 마을에 부족한 것들을 파악해 제주지역 발전을 다져왔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 밀려온 애향의 물결은 교량가설, 도로 확포장, 상수도, 전화·전기가설, 학교시설, 마을회관 건립 등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⁴⁾ 특히 이들은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하여 문화(문화, 체육시설, 언론매체 등) 분야를 비롯한 관광·감귤 산업에 이르기까지 심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제주지역의 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과 장학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946년 23억 원에서 2016년(2015년 기준 잠정자료) 154,322억 원(6,709배)으로 급성장하면서 1인당 소득도 8만 8천 원에서 2천 628만 원(2,436배)으로 크게 상승했다.⁵⁾ 결국, 현재 제주도는 재일제주인의 많은 기증과 공헌 활동으로 교육 및 문화 발전 향상에 한 축을 형성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고광명(2013)『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p.38-39

3)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p.37

4)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재일제주인 애향 100년-나의 살던 고향은』, p.30

5) 도제(道制)실시 이후 제주도 발전상 비교(1946-2016)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재일제주인의 삶 속에서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기증과 교육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점차 재일제주인 1세대들 단성(丹誠)의 흔적들이 사라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주인의 기억 속에 각종 사업에 헌신적인 봉사를 해온 뜨거운 고향사랑에 대한 그 의미가 점차 희미해지거나 잊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십 년의 풍량의 세월을 겪으면서도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있었던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 또한 그들의 은덕을 재조명하고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제주도 출신이라는 인식 하에 공덕(功德)을 정립하고 진정한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

2. 기존연구의 검토

2.1 재일제주인의 의미

외교부는 우리나라 국적 보유자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재외국민’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 재외국민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의 재외 한국인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교부는 재외동포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통칭하는 것으로 체류지는 물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에 체류 혹은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지칭하는 개념인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규정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6015호)과 큰 차이가 없다. 동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의

(단위 : 천명, 억 원, 천 원, 천 톤, 배)

구분	1946	1970	1980	1990	2000	2016	신장
인구	266	366	463	515	543	661	2.5
지역내총생산	23	240	3,492	19,237	55,824	154,322*	6,709
1인당소득	8.8	66	743	3,781	10,650	26,280	2,986
재정규모**	1	29	406	3,177	15,518	47,145	47,145
관광객	-	245	260	2,992	4,110	15,853	64.7
감귤생산	0.01	50	188	493	563	600***	60,000

주 : * 2015년 기준 잠정자료, ** 최종예산액 기준, *** 2015년 기준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는 이 둘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⁶⁾

재일제주인의 의미라는 것은 ‘재일동포(在日同胞)’⁷⁾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인(가족 등)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3세 등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재일제주인(在日濟州人)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⁸⁾

첫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 출신으로 일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지역 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地域性)을 갖고 있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현지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생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제주 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가치의 보수성(保守性)을 갖고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자연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生活共同體) 성격이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고향을 떠나 현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마을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 자신들만의 뿌리 의식인 연고성(緣故性)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체성을 가진 재일제주인은 타향인 현지 사회 속에서 직면하는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마련함과 동시에 고향 제주를 위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⁹⁾

2.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으로 이주한 제주도 출신들이 제주지역의 교육 및 문화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연구는 대부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재일제주인 사회에 대한 지역연구가 피상적 접근이라

6)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2008)『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제주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7) 정호승(2007)에 따르면, 해방이전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교포(僑胞)’가 아니라 동포(同胞)이다’라고 주장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조국을 떠난 이들을 교포라고 부른다면, 타의에 의해 강압적으로 조국을 떠난 이들은 동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우리는 재일동포를 재일교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가 재미교포를 재미동포라고 부르지 않듯이 재일동포를 재일교포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조국을 언제 어떻게 왜 어떤 형편에서 떠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생각되기 때문이다. 김남일 외(2007)『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현실문화연구, p.184

8) 고광명(2013), 앞의 책, pp.23-25

9) 고광명(2011)「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교육과학연구』제13권 제1호,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p.60-61

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재일제주인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小川伸彦寺岡伸悟(1995)는 재일한인 중에서 재일제주인의 고향 마을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사회가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제주도의 기증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재일제주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재일제주인 사회의 형성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기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¹⁰⁾ 高鮮徽(1998)는 재일제주인 사회에서 지연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존재가 마을 친목회라고 했다. 이는 해방 전후를 통해 일본에서 출신 지역별로 마을 친목회가 결성되면서 각 친목회가 규약을 정하고 연중행사나 출신지역에 대한 지원, 일본에서의 상호부조를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 출신들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출신마을의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와 상호교류를 충실히 시행해 왔으며, 교육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또 李仁子(2004)는 제주도 고내리(高内里) 출신자를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이주자의 고향에 대한 기부와 마을 관계의 변천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주자 중에는 고향과의 관계를 일절 단절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동향출신자 집단이나 조직을 만들어 고향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향수를 서로 느끼고자 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결국 이주자의 기부는 단순히 금전의 수주(受注)를 넘어 위신과 존엄의 수주, 은의와 감사의 교환이며, 게다가 고향 마을과의 정서적 연대의 갈망을 나타낸다는 것이다.¹²⁾ 永野慎一郎編(2010)은 재일한인들이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재일한인들이 한국의 경제개발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하였고, 산업계를 비롯한 금융, 재정,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 사회경제 발전을 비롯한 교육과 지역개발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¹³⁾

다음으로 고평명·진관훈(2006)은 인적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재일제주인의 상공업활동과 제주도에의 기증 현상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사회와 재일제주인 사회가 불신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고 했다.¹⁴⁾ 고평명(2010)은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일본

10) 小川伸彦寺岡伸悟(1995)「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社会学論集』第2号, 奈良女子大学, pp.77-97

11) 高鮮徽(1998)『20世紀の滞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明石書店

12) 李仁子(2004)「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学術研究報告書, pp.7-17

13) 永野慎一郎編(2010)『韓国の經濟發展と在日韓国企業人の役割』岩波書店

14) 고평명·진관훈(2006)「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社會科學研究』제14(1), 西江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pp.148-181

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 활동을 고찰하였다. 재일제주인은 제주사회의 기증과 고향의 애향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재화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결국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투자 활동이 관광, 감귤, 레저산업, 지역개발 등 제주지역의 눈부실만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진관훈(2005)은 재일제주인들의 기증이 지역사회 개발, 교육 및 마을 발전과 제주도 전반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 사적인 영역에서의 생활상태 개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¹⁶⁾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은 재일제주인들이 오사카에서 집거 구역을 만들어 살아오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성뿐만 아니라 제주인으로서 오사카 민족운동의 선두자 역할을 했다.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재일제주인들의 교육열은 그들의 고향인 제주도의 각 학교 및 교육에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¹⁷⁾ 고광명(2011)은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자료 조사를 통해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학교설립, 교육시설 지원, 장학 지원 등 교육 및 인재양성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¹⁸⁾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에 대한 기증, 교육 및 문화 발전 공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3. 제주도 교육 발전에 대한 공헌

본장에서는 지금까지 공식·비공식 자료를 통해 파악된 재일제주인의 학교설립, 교육시설 지원, 장학 지원 등 교육 발전에 대한 공헌 내용을 살펴보는데 있다. 학교설립은 제주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재일제주인의 투자를 통해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학교를 인수하여 공헌한 경우를 의미한다. 교육시설 지원은 교육시설의 연약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일제주인의 현금이나 현물을 통해 학교시설에 필요한 다양한 비품 등을

15) 고광명(2010)「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日本近代學研究』第27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217-242

16) 진관훈(2005)「재일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pp.151-168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pp.135-173

18) 고광명(2011), 앞의 논문, pp.5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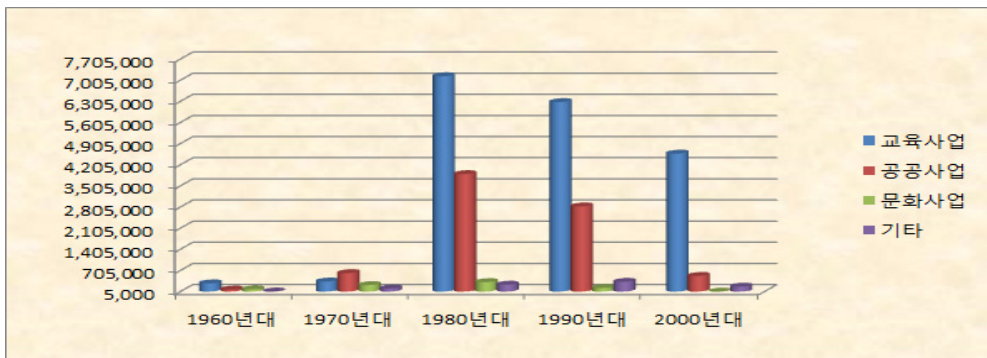
기증한 경우이다. 장학 지원은 제주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공헌한 경우이다. 특히, 1965년에는 제주도 개발을 위한 해외동포 재산반입 허가에 관한 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재일제주인의 향토개발을 위한 교육 투자의 길이 열렸다.

3.1 사업별 기증 현황

재일제주인의 물적(현금과 현물)기증은 제주도민들과의 혈연(血緣)·지연(地緣)·학연(學緣) 등 결속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의미한다. 이는 재일제주인의 애향심, 고향인 제주도와와의 연대, 제주도민과 재일제주인과의 동반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표 1>에서 재일제주인의 기증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사업(18,606,541천 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사업(7,932,056천 원), 문화사업(744,162천 원)에 대한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0년 이후에서 1990년대 사이에 교육사업 분야가 두드러지는 것은 기증 초기의 생활시설 사업 및 생활향상 수준에서 벗어나 제주도 경제가 발전됨으로써 인적자원 분야와 같은 인재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사업에서 새마을 사업과 같은 분야는 1960년대 지역개발 단계에서 도로, 전기·전화, 상·하수도 개설 등과 같은 생활기반 조성사업, 감귤농장 초기 조성, 지역개발 등이 제주도 마을 발전에 커다란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¹⁹⁾

(단위 : 천원)



<그림 1> 재일제주인의 기증 실적 현황

19) 고헌명(2011), 앞의 논문, p.62

<표 1> 재일제주인의 기증 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별 연대별	교육사업	공공사업	문화사업	기타	합계
1960년대	277,613	71,992	80,217	8,010	437,832(1,966건)
1970년대	338,775	616,405	220,836	107,252	1,283,268(2,837건)
1980년대	7,136,222	3,894,924	317,789	233,853	11,582,788(1,825건)
1990년대	6,281,027	2,825,706	123,320	328,172	9,558,225(1,543건)
2000년대	4,572,904	523,029	2,000	168,053	5,265,986(469건)
합계	18,606,541	7,932,056	744,162	845,340	28,128,099(8,640건)

주 :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합계는 도와제주인, 재마·재중제주인, 재일제주인, 기타 지역
실적을 모두 합한 실적금액임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3.2 교육 발전에 대한 공헌 내용

3.2.1 학교설립

제주도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역사의 원동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문화의 이해 등에 대한 인적자원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8·15해방, 43사건, 한국전쟁 등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우리 민족과 제주지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몫을 했다. 거기에는 우리 민족²⁰⁾과 제주인의 가슴속에 일본 식민지 36년 동안의 억압된 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힘겹게 이어온 민족의 저력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²¹⁾

우선, 동천(東泉) 김평진(金坪珍)은 1966년 운영난에 허덕이는 제주여자학원(濟州女子學園)²²⁾을 인수²³⁾하여 여성교육의 요람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갔다. 제주여자학원은 1946년 제

20) 민족교육의 선구자 조규훈(曹圭訓) 선생은 17세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별목사업, 제제소, 고무공장 등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여 1947년 당시 사재 1,300만 엔을 들여 꿈에 그리던 건국학교를 오사카에 세웠다. 그는 재일신춘친목회를 통해 조천중학교 설립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부속건물과 학교 기자재, 장학금 등으로 끊임없이 후학들을 돌보는 등 일본뿐만 아니라 고향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 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 앞의 책, pp.34-35.

21) 고헌명(2011), 앞의 논문, pp.66

22) 당시 본 학원은 호은(湖隱) 김홍빈(金弘斌)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1946년 2월 10일에 설립되었지만 형제간의 학교경영에 대한 의견과 불화가 심각해지면서 더 이상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때 재일제주인 기업가 김평진은 김평식(당시 제주관광호텔 사장)의 주선으로 1966년 7월 제주여자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였다.

주고등여학교로 개교하고, 1947년 제주여자초급중학교 인가와 함께 재단설립 인가를 받았다. 1951년 8월에는 제주여자고등학교 6학급 인가를 받고, 동년 9월 제주 최초의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김평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전직 이사장들의 공적을 이어받아 이 학교를 타고에 손색이 없는 선구적인 위치로 올려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취임사의 공언대로 본교는 1972년 아라동 현재 부지로 이설하여 당시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로 거듭나게 된다. 현재는 장남 김화남(金和男)²⁴⁾이 제주여자학원 이사장(1995.11~현재)으로 취임하여 새로운 발전을 목표로 추진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²⁵⁾

다음으로 송제(松濟) 백이남(白二南)은 1916년 7월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2474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 한문(서당)을 수학했고, 청소년기에 생활고에서 벗어나고자 1947년 32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男兒立志出鄉關，學若無成死不還(남아가 뜻을 세워 고향을 나와 이루지 못하면 죽어서도 돌아오지 않겠다)”이라는 결심을 거듭 다짐하며 인내로 삶을 살았다. 그는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수돗물이 없던 시절에 우물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였고, 초·중학교 교실이 노후화된 것을 알고 신축과 개축에 소요되는 많은 금액을 희사하였다.

백이남은 1910년 10월 도쿄 마치다(町田) 나루세(成瀬)에 성남종합병원을 설립한 이후 어린 시절에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배우려 해도 배울 수 없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에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주자는 일념을 갖고 있었다. 1985년 2월 학교법인 남녕학원(南寧學園)을 설립하여 1986년 3월 남녕고등학교(대지 11,000평, 총 건평 3,300평)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본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익사업체로 남녕개발(南寧開發)을 설립하여 학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또한 평소 학생들에게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고, 그 배움은 나라를 위해 베풀어야 한다는 애국 학생을 천명하여, 건학이념에 학생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철학으로 삼게 했다. 현재는 백용환(白湧煥)이 남녕학원 이사장(1995.3~현재)으로 취임하여

23)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할 당시 김인호 선생의 회고에 의하면, 김평진은 학원 인수 후 전교직원에게 양복 한 벌 값에 해당하는 8천 원을 지급했으며, 전교직원에게 ‘인화(人和)와 화합(和合)’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출발한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진은 김평식, 강주철, 채원배, 김계남, 이경수, 홍성림씨 등 6명이 선임되어 활동했다.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2006)『건학 60년』, pp.393-394

24) 김화남 이사장은 1945년 12월 7일 도쿄에서 출생하여 1967년 일본 릿교(立教)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그는 1967년 김해상사 주식회사에 입사하고 서귀포관광호텔 사장을 역임하면서 경영에 발을 들여났다. 1977년에는 (주)김해상사 대표 취체역(取締役)에 취임하고, 1990년에는 재일본 한국인청년상공연합회 회장을 맡아 민단(民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공로로 1991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1995년에는 재일본 제주도민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동년 11월 3일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제16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25) 고헌명(2010)「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日本近代學研究』30, pp.327-328.

제2의 창학(創學) 원년으로 삼아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²⁶⁾

이 외에도 제주도 출신 재일친목회 회원들은 1971년 신업중학교를 비롯하여 고산중학교, 고산상업고등학교, 조천중학교, 연평중학교 등을 설립하면서 재일제주인 2세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그들의 큰 뜻이 후학들에게 전해져 배움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²⁷⁾

결국, 이들은 제주교육 사업에 전념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였으며, 고향에 교육기관을 건립·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²⁸⁾ 이처럼 가난한 고향을 떠나서 가진 것 없이 타국에서 갖은 고생을 했던 제주도 출신들은 교육에 대한 그들의 열망이 누구보다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3.2.2 교육시설 지원

1950년대를 전후하여 1978년까지 제주도 교육시설에 지원한 실적은 초등학교 171,490천 원, 중학교 133,317천 원, 고등학교 72,098천 원 등 총 376,905천 원에 이르러 초등학교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교육지원은 각 지역 또는 마을 주민과의 연대로 이루어지면서 제주도에 거의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있었고, 읍·면까지 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⁹⁾

<표 2>에서 보면, 재일제주인의 교육시설 지원은 1950년대 25,996천 원, 1960년대 113,360천 원, 1970년대 262,751천 원, 1980년대 5,402,346천 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1,204,484천 원, 2000년대 256,529천 원에 달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재일제주인의 지원 내용도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보조를 비롯하여 교사신축 및 교실증축, 도서(관) 시설, 시청각교재, 악기류, 동상과 탑 건립, 체육시설, 과학기구, 학교 일반비품, 울타리 축조, 도로정비, 학습지, 교문, 교사 및 숙소, 급수시설, 국기계양대, 온실, 부속건물, 스쿨버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육지원 활동이 이루어졌다. 결국, 재일제주인은 교사신축 및 교실증축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부지 확장을 위한 보조, 도서관(실) 건립 및 도서류, 시청각 교재, 악기류 순으로 지원하는 등 교육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⁰⁾

따라서 재일제주인은 배움이 어려웠던 자신의 한(恨)을 고향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물질 및 교육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26) 학교법인 남녕학원·남녕고등학교(2006)『南寧二十年史』, pp.393-394

27)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 앞의 책, p.70, p.101, p.35, p.106

28) 고광명(2011), 앞의 논문, pp.66-67

29) 제주도교육청(1979)『제주교육사』, p.458

30) 고광명(2011), 앞의 논문, pp.64-65

<표 2> 재일제주인의 교육시설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대	학교부지	교사(교실) 건축	도서시설	악기류	시청각 교재
1950년대 이전	8,930	14,680		378	292
1960년대	8,760	54,223	23,553	11,769	3,256
1970년대	46,750	71,925	28,485	28,849	17,364
1980년대	569,390	4,127,303	154,742	50,327	83,631
1990년대	0	465,932	38,181	42,029	56,287
2000년대	0	0	20,100	8,600	0
합계	633,830	4,734,063	265,061	141,952	160,830
구분 연대	동상 및 탑	일반비품	체육시설	과학기구	기타
1950년대 이전		275	102	1,220	119
1960년대	170	4,442	2,141	993	4,053
1970년대	24,575	10,421	15,078	3,400	15,904
1980년대	32,117	119,838	6,988	15,550	242,460
1990년대	24,250	228,646	4,513	0	344,646
2000년대	0	0	0	0	227,829
합계	81,112	363,622	28,822	21,163	835,011

자료 : 고광명(2011)「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교육과학연구』제13권 제1호,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p.60-61

3.2.3 장학 지원

제주도 장학 지원 활동은 해방을 전후하여 경제적 혼란기에도 불구하고 독지가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이후에 들어 재일제주인은 학교건립, 학교시설, 교재교구 등 물질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고향의 가난한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① 이두후(李斗厚, 성산면 온평리)는 이두후장학회(李斗厚獎學會)를 조직하여 성산수산고등학교 재학생에게 1962년부터 1976년까지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 및 대학 진학생에게 1973년부터 학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② 안명규(安明奎, 조천면 신흥리)는 1976년 춘원장학회(春園獎學會)를 설립해 고등학교·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200만 원씩 3년 동안 총 1,693만 원을 지급하여 고향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였다. ③ 김정광(金正廣, 구좌면 감녕리)은 1978년 삼려장학회(三麗獎學會)를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장학금(기금 1억 원, 연간 지급액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³¹⁾ ④ 김영조(金永祚,

제주시 도평동)는 1978년 영도복지회를 창립하여 제주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었다. ⑤ 한재용(韓在龍, 조천면 함덕리)은 1960년대 초 고향에 있는 함덕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품을 보내면서 교육지원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 특히, 고향 출신자들(5명)은 1988년에 기금 5,000만 원을 거출하고 재단법인 함덕장학회(咸德獎學會)를 설립하여 2008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왔다. ⑥ 김순자(金順子)는 남편 좌수만(左銖磐, 애월읍 금성리)의 유지에 따라 1994년에 10억 원을 출자해서 좌수만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그 동안 생활이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70여 명)에게 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육영사업에 공헌하였다. ⑦ 백창호(白昌鎬, 제주시 건입동)는 1986년 제주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고향발전에 이바지해 왔고, 1994년 기독교 법인단체인 (재)운산장학회를 창립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왔다. ⑧ 고매화(高梅化, 한경면 낙선리)는 청운장학회를 설립하여 조수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학비를 지급하였다. ⑨ 이근식(李根植, 서귀포시 도평동)은 1998년 6억 2천만 엔의 사재를 출연하여 도쿄에 청봉(靑峰)국제교육진흥재단(후에 청봉장학재단으로 개칭)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본국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주도 출신의 우수한 유학생을 선발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금(5억 엔)과 운영자금(1억 2천만 엔)으로 운영되고 있다.³²⁾ ⑩ 임원순(任元淳, 한림읍 웅포리)은 1988년 장학금 2천만 원을 내놓아 만대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⑪ 김종림(金仲林, 한림면 웅포리)은 1993년 1억 원을 쾌척해 중림장학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³³⁾ ⑫ 이시향(李時香, 한경면 두모리)은 2010년부터 이시향 장학기금, 인재양성관 건립기금 등 총 20억 1천만 원을 제주대학교에 쾌척해 오고 있다.³⁴⁾ ⑬ 김창인(金昌仁, 한림읍 귀덕2리)은 2012년 재일제주인센터 건립 등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200억 원을 기부하여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후학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일제주인의 삶과 정신, 철학까지 전하고 있다.³⁵⁾

이처럼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이들은 제주도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31) 제주도교육청(1979)『제주교육사』, p.662

32) 고광명(2011), 앞의 논문, pp.69-70

33)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 앞의 책, p.126

34) 《제주의 소리》 2016년 8월 26일

35)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 앞의 책, p.38

4. 제주도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

4.1 지역별 기증 현황

1970년대 이후에 들어 재일제주인은 1977년 제주신문에 투자하여 언론의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1984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종합경기장을 건립하였다. 또한 2004년 서귀포시에 20억 원을 들여 예술 전문 공연무대로 김정문화회관을 세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⁶⁾ 결국, 이것은 재일제주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작용하면서 제주지역의 문화(문화시설, 체육시설, 언론매체 등)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3, 4, 5>에서 재일제주인의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증 실적은 총 120건(1,945,780천 원)으로 이중 제주도 39건(1,279,427천 원), 제주시 46건(27,951천 원), 서귀포시 35건(638,222천 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지역 사회 공헌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으며, 제주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건수 면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도민들이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면서 재일제주인의 본도에 대한 기증 패턴도 변모하고 있다. 향후 재일제주인의 기증은 물품보다는 본도의 길흥사에 내는 성금이나 의연금을 기탁하는 쪽으로 패턴이 변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³⁷⁾

4.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개인 기부를 포함하여 현물(체육용구, 동백나무, 영사기, 대형벽 시계 등)에 비해 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라문화제, 전국소년체육대회, 올림픽 성화 기념식수, 서울 올림픽 성화 기념사업 성금 등 인적 네트워크(친목회 등)를 통해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체육회에 가장 많이 기부한 194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1,189,870천 원)을 비롯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사업(35,000천 원)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 발전에 대한 기증 활동은 마을 단위의 노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 현상과 더불어 재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³⁸⁾

36)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 앞의 책, p.42

37)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재외동포재단, p.145

38) 고헌명(2008)「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日本近代學研究』22, pp.187-210

<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발전에 대한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년도
제주도청		현금	80		한라문화제 성금	1968
제주도체육회	체육용구	현물	217	1	제주도체육회용	1972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250		제주도체육회 폴장시설 기금	1972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450		한라문화제 성금	1973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1,600		제13회 한라문화제 성금	1974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300		제주 한라문화제 성금	1975
제주도청		현금	100		제주 한라문화제 성금	1976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350		한라문화제 성금	1978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200		한라문화제 성금	1979
제주도체육회		현금	100		제주도 체육진흥기금	1980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1,000		한라문화제 성금	1980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700		한라문화제 성금	1981
제주도체육회		현금	2,000		제주도체육회 성금	1981
제주도체육회		현금	5,000		체육 성금	1982
예총제주도지부		현금	1,000		한라문화제 성금	1982
제주도교육위원회		현금	1,500		체육기구 구입비	1983
제주도체육회		현금	1,189,870		제13회 전국소년체육 성금	1984
제주도청		현금	400		한라문화제 성금	1985
제주도청	동백나무	현물	600	60년생	제주도문예회관 기념식수	1987
제주도청		현금	20,000		올림픽 성화 기착지 기념식수 성금	1988
제주도청		현금	500		한라문화제 성금	1988
제주도청		현금	500		한라문화제 성금	1988
제주도청	영사기(16mm)	현물	2,960		문화진흥원 비품	1988
제주도청		현금	1,000		한라문화제 성금	1988
제주도청		현금	15,000		서울올림픽 성화맞이 기념사업 성금	1988
제주도청		현금	1,500		한라문화제 성금	1988
KBS	대형벽시계	현물	850		KBS 비품	1990
MBC	대형벽시계	현물	850		MBC 비품	1990
제민일보사	대형벽시계	현물	850		제민일보사 비품	1990
제주신문사	대형벽시계	현물	850		제주신문사 비품	1990
한라일보사	대형벽시계	현물	850		한라일보사 비품	1990
제주도청		현금	1,000		제30회 한라문화제 성금	1991
제주도청		현금	2,000		한라문화제 성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1992
제주도체육회		현금	1,000		체육진흥 기금	199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현금	5,000		전국소년체전 격려금	200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현금	7,000		전국체전 격려금	200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현금	5,000		체육 기금	200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현금	5,000		체육 기금	2005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현금	2,000		제86회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성금	2005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4.1.2 제주시(구 제주시와 북제주군)

제주시의 경우는 현물(앰프, 스피커, 라디오, TV, 영사기, 녹음기, 체육복, 축구배구공 등)에 비해 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회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문화사업, 체육진흥 성금 등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제주인은 1978년 구좌읍 체육 향상 기금(10,000천 원)을 비롯하여 1980년 연동 체육진흥 기금(3,000천 원), 1990년 제주시 체육회 기금(10,000천 원)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주시 문화 발전에 대한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년도
한림읍		현금	35		금능리 문화시설	1963
한림읍		현금	35		금능리 문화시설	1963
한림읍		현금	50		주원리 문화시설	1965
한림읍	앰프, 스피커	현물	21.5	2	협재리 문화시설	1965
한림읍	스피커	현물	5	1	협재리 문화시설	1966
이호동		현금	250		문화회관 건립 기금	1966
한경면	스피커, 마이크, 전축, 배터리	현물	70	4	한원리 문화시설	1967
한경면	라디오	현물	10	1	용당리 문화시설	1967
화북동		현금	100		화북동 문화시설	1969
제주시		현금	500		체육시설 기금	1971
제주시		현금	100		제주시 체육시설용	1971
한림읍		현금	50		한림읍 체육회 기금	1971
한림읍		현금	70		한주리 문화시설	1971
한림읍	TV	현물	90	1	명월리 문화시설	1972
한림읍	TV	현물	70	1	강구리 문화시설	1972
한경면	영사기(35mm)	현물	145	1	한경면민관 문화시설	1972
외도동	앰프	현물	60	1	외도동 문화시설	1972
한림읍	스피커, 앰프	현물	60	각 1	신흥리 문화시설	1973
한림읍	TV	현물	100	1	명월리 문화시설	1973
한경면	라디오	현물	7	1	고산리 문화시설	1973
한경면		현금	50		한림리 문화시설	1974
애월읍	앰프	현물	100	1	신엄리 문화시설	1974
구좌읍	앰프	현물	50	1	동김녕리 문화시설	1974
건입동		현금	25		전도 체육대회 찬조금	1974
한림읍		현금	180	7건	한림읍 체육대회 기금	1975
애월읍	TV	현물	150	1	동귀리 문화시설	1975
한경면	앰프, 녹음기, 전축	현물	75	3	금능리 문화시설	1975
한경면	앰프시설	현물	350	1	낙천리 문화시설	1975
한림읍		현금	500		한림읍 문화시설	1976

애월읍		현금	5		용흥청년회 체육 기금	1976
애월읍	TV	현물	100	1	동귀리 문화시설	1976
화북동	앰프 외 4종	현물	294	9	화북동 문화사업	1976
한림읍		현금	30		한림리 문화시설	1977
구좌읍	체육복	현물	120		중달리 문화시설	1978
구좌읍		현금	10,000		구좌읍 체육 향상 기금	1978
조천읍	TV	현물	100	1	조천리 문화시설	1978
한경면		현금	120		두모리 문화시설	1979
연동		현금	100		체육 성금	1980
연동		현금	100		제주도 체육진흥 기금	1980
연동		현금	3,000		체육진흥 기금	1980
한림읍		현금	30		귀덕2리 사무소 문화시설	1981
한경면		현금	200		용당리 문화시설	1981
화북동	앰프 외 4종	현물	294	9	화북동 문화사업	1982
조천읍	축구공, 배구공	현물	100	각 5	와홀리 체육기구	1983
조천읍		현금	50		함덕리 체육기구	1983
제주시		현금	10,000		제주시 체육회 기금	1990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4.1.3 서귀포시(구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서귀포시의 경우는 현물(앰프, TV, 오르간, 스피커, 벽시계 등)에 비해 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회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문화사업, 체육진흥 성금 등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제주인은 1978년 법환리 문화시설(1,500천 원)을 시작으로 1982년 서귀포시 체육 기금(2,249천 원), 1996년 표선면 체육관 건립 신축 기금(413,626천 원), 1997년 성산읍 체육관 건립 기금(21,500천 원), 1999~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금(195,642천 원)에 기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서귀포시 문화 발전에 대한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수증처	품명	종류	금액	수량	기증 목적	년도
대정읍		현금	10		대정읍 문화시설	1964
표선면	앰프시설	현물	140	1	가시리 문화시설	1962
표선면	앰프시설	현물	30	1	세화2리 문화시설	1965
대정읍		현금	145		대정읍 문화시설	1972
성산읍	TV	현물	130		성산리 문화시설	1973
안덕면	TV	현물	60	1	덕수리 문화시설	1973
대정읍	TV	현물	120	1	동일리 문화시설	1974
대정읍		현금	50		인성리 문화시설	1974
대정읍	TV	현물	300	2	가파도, 마라도 문화시설	1974
대정읍	앰프	현물	130	1	의귀리 문화시설	1974

남원읍		현금	200		남원리 문화시설	1974
성산읍	앰프	현물	15	1조	성산리 문화시설	1974
중문동		현금	20		체육대회 경비	1974
중문동		현금	100		체육대회 경비	1974
송산동		현금	100		서귀포 체육기금	1975
성산읍		현금	250		수산리 문화시설	1975
송산동	오르간	현물	180	1	문화사업용	1975
중문동		현금	200		대포리 문화시설	1975
남원읍	스피커	현물	35	1	위미리 문화시설	1976
남원읍	앰프	현물	50	1	위미리 문화시설	1977
대륜동		현금	1,500		법환리 문화시설	1978
대정읍		현금	100		동일리 문화시설	1979
남원읍	TV	현물	80	1	태흥리 문화시설	1979
남원읍	앰프	현물	100	1식	태흥리 문화시설	1979
안덕면	TV	현물	120	1	사계리 문화시설	1979
남원읍	벽시계	현물	40	1	수산리 문화시설	1981
성산읍		현금	1,000		성산읍 체육대회 기금	1981
송산동		현금	2,249		서귀포시 체육 기금	1982
표선면		현금	183,200		표선면민 체육관 건립 기금	1996
표선면		현금	230,426		표선생활 체육관 신축 기금	1996
성산읍		현금	21,500		성산읍민 체육관 건립 기금	1997
서귀포시		현금	6,000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금	1999
서귀포시		현금	70,938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금	2000
서귀포시		현금	102,716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금	2001
서귀포시		현금	15,988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금	2002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 『愛郷の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4.2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 특성

4.2.1 종류별 공헌 특성

<표 6>에서 재일제주인의 종류별 공헌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증 실적은 총 1,945,780천 원(120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1,279,427천 원(39건), 제주시 27,951천 원(46건), 서귀포시 638,222천 원(35건)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금(1,933,672천 원, 75건)이 현물(11,928천 원, 45건)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1,279,427천 원)가 제주시(27,951천 원)와 서귀포시(638,222천 원)에 비해 기증 금액 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와 제주도 예산이 부족한 시기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제주시, 서귀포시)·군(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비해 제주도 관련 조직에 많은 현금과 현물을 기증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종류별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현금	1,271,400	31	25,580	24	636,692	20
현물	8,027	8	2,371	22	1,530	15
합계	1,279,427	39	27,951	46	638,222	35

주 : 천원 미만은 금액에서 절사함. 2000년대는 2007년 6월 30일까지임.

자료 :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에서 조사 작성

4.2.2 연대별 공헌 특성

<표 7>에서 연대별 흐름에 따른 기증 실적은 1960년대 836천 원(13건), 1970년대 20,953천 원(58건), 1980년대 1,250,793천 원(28건), 1990년대 459,376천 원(13건), 2000년대 213,642천 원(8건)으로 그 중 1980년대에 기증 금액 및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이후 모국방문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고향의 문화 발전에 대한 열의에 보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연대별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1960년대	80	1	576	9	180	3
1970년대	3,467	8	13,501	28	3,985	22
1980년대	1,243,630	17	3,874	8	3,289	3
1990년대	8,250	8	10,000	1	441,126	4
2000년대	24,000	5			189,642	3
합계	1,279,427	39	27,951	46	638,222	35

자료 : <표 6>과 동일

4.2.3 목적별 공헌 특성

<표 8>에서 목적별 기증 현황을 보면 문화시설과 언론매체에 비해 체육시설에 기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주도 문화 발전은 지역주민의 지원과 더불어 재일제주인의 지원 등으로 문화시설의 기반을 이루었고 지속적으로 문화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다. 재일제주인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내용을 보면 문화시설(한라문화제 성금, 비품, 기념식수, 문화회관 건립기금, 읍면동 지역 문화시설 및 사업 등), 체육시설(풀장시설 기금, 체육진흥 기금, 체육회 성금, 체육기구 구입,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금, 기념식수 및 사업 성금,

격려금, 읍면·동 지역 체육대회 경비 및 찬조금, 체육관 신축 기금, 월드컵 경기장 건립 기금 등), 언론매체(도내 방송신문사 등 비품)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목적별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문화시설	16,240	19	3,741	33	3,985	23
체육시설	1,258,937	15	24,210	13	634,237	12
언론매체	4,250	5				
합계	1,279,427	39	27,951	46	638,222	35

자료 : <표 6>과 동일

4.2.4 수증기관별 공헌 특성

<표 9>에서 수증기관에 따른 기증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제주도 체육회, 제주도청, 예총 제주도지부를 중심으로 많은 기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경우는 읍면·동 지역 중에서 한림읍, 구좌읍이, 서귀포시의 경우는 표선면, 성산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증 금액 및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제일제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인 친목회, 향우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9> 수증기관별 기증 현황

(단위 : 천원)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수증기관	금액	건수	수증기관	금액	건수	수증기관	금액	건수
제주도청	45,640	13	한림읍	1,326	15	대정읍	855	7
제주도 체육회	1,222,187	11	한경면	1,027	9	표선면	413,796	4
예총 제주도지부	5,850	9	애월읍	355	4	성산읍	22,895	5
도 교육위원회	1,500	1	구좌읍	10,170	3	안덕면	180	2
KBS	850	1	조천읍	250	3	남원읍	505	6
MBC	850	1	동지역	4,223	9	동지역	4,349	7
제민일보사	850	1	제주시	10,600	3	서귀포시	195,642	4
제주신문사	850	1						
한라일보사	850	1						
합계	1,279,427	39	합계	27,951	46	합계	638,222	35

자료 : <표 6>과 동일

5. 맺음말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교육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청, 교육청, 시청, 군청 등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 마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지역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제주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여자학원과 남녕학원 등 학교설립 및 육성에 큰 공헌을 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문화, 체육 시설, 언론매체 등 문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결국 본 연구는 교육 발전(학교설립, 교육시설, 장학지원 등) 및 문화 발전(문화, 체육시설, 언론매체 등)에 대한 공헌을 통해 제주지역의 인재양성 및 지역발전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의 애향심은 제주도의 산업발전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발전에도 큰 힘이 되어왔던 것이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인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교육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을 살펴봄으로써 재일제주인의 삶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제주도민들은 재일제주인의 기증과 교육지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재일제주인의 애향심과 제주사회의 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재일제주인과 제주도 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재일제주인을 경계인(境界人)이 아닌 진정한 제주인으로 인식하기 위해 제주도와 재일제주인이 함께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參考文獻】

- 고광명(2008)「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日本近代學研究』22, pp.187-210
- _____ (2010a)「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에의 기증과 투자활동」『日本近代學研究』27, pp.217-242
- _____ (2010b)「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 東泉 金坪珍 연구」『日本近代學研究』30, pp.315-333
- _____ (2011)「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지역 교육발전에 대한 공헌」『교육과학연구』제13권 제1호, 제주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pp.60-61
- _____ (2013)『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제주MBC편성제작팀·제주특별자치도(2012)『재일제주인 애향 100년-나의 살던 고향은』
- 고광명·진관훈(2006)「재일 제주인의 상공업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社會科學研究』14(1), pp.148-181
- 김남일·서경식·양영화·정호승·최인석(2007)『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현실문화연구
-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2008)『母國을 향한 在日同胞의 100년 足跡』재외동포재단
-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2014)『재일제주인 기업가 현황 및 실태 조사 보고서』
- 제주도교육청(1979)『제주교육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pp.135-173
- 진관훈(2005)「재일제주인들의 「고향」 제주에의 기증에 관한 연구」『在日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외 발표 자료집, pp.151-168
- 학교법인 남녕학원·남녕고등학교(2006)『南寧二十年史』
-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제주여자중학교(2006)『건학 60년』
- 濟州特別自治道(2007)『愛郷의 보람-在日同胞 寄贈實績』
- 高鮮徽(1998)『20世紀の滯日濟州島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明石書店
- 李仁子(2004)「移住者の故郷への寄付と故郷づきあいの変遷」『在日コリアンの社会的ネットワークと文化動態に関する比較社会学的研究』文部省科学研究費 国際學術研究報告書, pp.7-17
- 小川伸彦·寺岡伸悟(1995)「在日社會から「故郷」濟州道への寄贈-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地縁結合」『社会學論集』2, pp.77-97
- 永野慎一郎編(2010)『韓国の經濟發展と在日韓国企業人の役割』岩波書店
- 入管協會(2012)『在留外國人統計』
- 《제주의 소리》2016년 8월 26일

논문투고일 : 2017년 07월 01일
 심사개시일 : 2017년 07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4일
 2차 수정일 : 2017년 0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8월 17일

 <要旨>

재일(在日)제주인의 제주도 교육·문화 발전에 대한 고찰

고광명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의 제주도 교육 및 문화 발전에 대한 공헌을 고찰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제주도청, 교육청, 시청, 군청 등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 마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의 지역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제주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여자학원과 남녕학원 등 학교설립 및 육성에 큰 공헌을 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교육시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넷째, 재일제주인은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다섯째, 재일제주인은 문화, 체육시설, 언론매체 등 문화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 발전(학교설립, 교육시설, 장학지원 등) 및 문화 발전(문화, 체육시설, 언론매체 등)에 대한 공헌을 통해 제주도의 인재양성 및 지역발전에 재일제주인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The Study on the Chejudo Education and Culture development of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Ko, Kwang-Myong

This is to study th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hejudo education and culture by the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My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did help Chejudo region development from a provincial office, education office and city hall(county office) to the Eup, Myeon and Dong area. Second, the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Jeju Women's School and Nam-nyong School to educate Chejudo young generation. Third,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supported jeju society with wide range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ejudo, they donated real estate, school facility. Next, they granted scholarship for the students from the low income families and support their families, too. Finally, Jeju people Resident in Japan did help Chejudo culture development such as the culture facilities,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and journalism.

From the study of these factors, it was revealed that their education development(school establishment, educational facilities support, encouragement of learning support), culture development(culture facilities,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journalism) did help Jeju region develop and its human resources.